세계 카사바산업 동향

정 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카사바란 무엇인가?

카사바(cassava, 또는 매니옥(manioc))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이다. 카사바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로 당이뿌리가 사방으로 쳐져 고구마와 비슷하게 굵으며 겉껍질은 갈색이고 속은 하얀색인 뿌리채소이다. 상당히 큰 고구마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러면서 왜 이 시점에서 카사바를 이야기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타피오카(tapioc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타피오카(tapioca)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사바와 마찬가지로 타피오카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카사바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20~25%의 녹말이 함유되어 있다. 타피오카는 이 열대작물인 카사바에서 채취한 식용 녹말(전분)을 의미한다. 카사바를 짓이겨 녹말을 물로 씻어내 침전시킨 후 건조시켜서 타피오카를 만든다. 타피오카는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녹말 자원으로 녹말당, 과자제조, 방직용품 등으로 이용된다.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며 최근에 다시 유행하

---

* (dhchung@krei.re.kr, 02-3299-4297).
1) 사전적 의미는 카사바와 타피오카를 구분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 있는 버블티(Bubble Tea)에 들어 있는 동그랗고 검은 알갱이가 바로 타피오카이다. 전분은 지상전분과 지하전분으로 구분된다. 이 역시 카사바나 타피오카와 같이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단어 뜻 그대로 전분의 원료가 적절 햄빛을 받고 자.descriptor는 아니면 방속에서 자라는지를 차이로 구분한다. 쌀, 옥수수, 밀 등은 지상전분이고 감자, 고구마 등은 지하전분이다. 타피오카는 지하전분에 해당한다. 지하전분은 지상전분보다 찰기가 더 많으며 호화(糊化)가 더 빨리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하전분은 지상전분에 비해 찰기가 좋기 때문에 품질과 같은 식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하전분인 감자, 고구마 전분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최근 국내 식품업체에서 타피오카의 쓰임새가 점점 널리지고 있는 추세이다. 바이오 에탄올과 주정(소주 원료)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카사바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등 선진국들도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카사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카사바 생산현황

2.1. 대륙별 카사바 생산

카사바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그리고 중남미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카사바 재배에 적합하다. 전 세계 카사바의 생산량은 2000년 176.6백만 톤에서 2010년 230.3백만 톤으로 연평균 약 3%의 빠르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8% 성장하였고 중남미는 0.6%, 아시아는 5.1% 성장하였다. 지역별로 카사바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아프리카가 2008~2010년 평균 121.1백만 톤을 생산하여 전 세계 카사바 생산의 52.1%를 차지하였다. 중남미는 동기간 33.4백만 톤으로 14.4%, 아시아는 77.8백만 톤으로 33.5%를 차지하고 있다. 카사바 생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0%에서 2010년 52.8%로 하락하였고 중남미도 동기간 17.7%에서 14.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아시아는 2000년 28.2%에서 2010년 32.6%로 증가하였다.

3) 호화란 쉽게 풀이하면 물을 넣었을 때 살짝 부풀면서 점성이 증가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벨이 들어가면서 부드러운 벨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반죽을 끼고 설탕을 넣었을 때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에는 카사바를 세절(細切)하여 말린 카사바 칩(cassava chip)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표 1 대륙별 카사바 생산  
단위 : 백만 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0</th>
<th>2005</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평균(08-10)</th>
</tr>
</thead>
<tbody>
<tr>
<td>세계</td>
<td>176.6</td>
<td>205.9</td>
<td>223.8</td>
<td>226.3</td>
<td>232.1</td>
<td>235.0</td>
<td>230.3</td>
<td>232.5 (100%)</td>
</tr>
<tr>
<td>아프리카</td>
<td>95.3</td>
<td>111.9</td>
<td>119.0</td>
<td>116.4</td>
<td>121.1</td>
<td>120.4</td>
<td>121.7</td>
<td>121.1 (52.1%)</td>
</tr>
<tr>
<td>중남미</td>
<td>31.3</td>
<td>36.3</td>
<td>37.0</td>
<td>36.7</td>
<td>34.3</td>
<td>32.8</td>
<td>33.3</td>
<td>33.4 (14.4%)</td>
</tr>
<tr>
<td>아시아</td>
<td>49.7</td>
<td>57.6</td>
<td>67.5</td>
<td>73.0</td>
<td>76.5</td>
<td>81.6</td>
<td>75.2</td>
<td>77.8 (33.5%)</td>
</tr>
</tbody>
</table>


전 세계 카사바 재배면적은 평균(2008~2010년) 18.6백만 ha이다. 이 중 아프리카의 재배면적은 12백만 ha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있고, 중남미는 2.6백만 ha로 14.1%, 아시아는 4.0백만 ha로 21.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륙별 재배면적 비중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2000년 64.8%에서 2010년 64.5%로 소폭 감소하였고, 중남미도 동기간 14.9%에서 14.4%로 소폭 감소하였다. 아시아는 동기간 20.2%에서 21.0%로 전 세계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표 2 대륙별 카사바 재배면적  
단위 : 백만 ha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0</th>
<th>2005</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평균(08-10)</th>
</tr>
</thead>
<tbody>
<tr>
<td>세계</td>
<td>17.0</td>
<td>18.4</td>
<td>18.6</td>
<td>18.5</td>
<td>18.5</td>
<td>18.8</td>
<td>18.6</td>
<td>18.6 (100.0%)</td>
</tr>
<tr>
<td>아프리카</td>
<td>11.0</td>
<td>12.1</td>
<td>12.1</td>
<td>11.9</td>
<td>11.8</td>
<td>12.2</td>
<td>12.0</td>
<td>12.0 (64.4%)</td>
</tr>
<tr>
<td>중남미</td>
<td>2.5</td>
<td>2.8</td>
<td>2.8</td>
<td>2.8</td>
<td>2.6</td>
<td>2.6</td>
<td>2.7</td>
<td>2.6 (14.1%)</td>
</tr>
<tr>
<td>아시아</td>
<td>3.4</td>
<td>3.5</td>
<td>3.7</td>
<td>3.8</td>
<td>4.0</td>
<td>4.1</td>
<td>3.9</td>
<td>4.0 (21.4%)</td>
</tr>
</tbody>
</table>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카사바 생산량과 재배면적은 2000년에 비하여 모두 증가하였지만, 전 세계 카사바 생산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가 전 세계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52.8%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재배단수가 아시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요 확대와 전년 가격 상승, 그리고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카사바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등의 이유로 카사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국가별 카사바 생산

전 세계 카사바 생산량의 90%는 상위 20개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그 중 12개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이고, 아시아는 6개 국가, 특히 남미는 2개 국가에 불과해 카사바의 원산지라는 사실이 무색하다. 주요 생산 국가들을 살펴보면 카사바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 그리고 동남아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thead>
<tr>
<th>국가명</th>
<th>2000</th>
<th>2005</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평균(08-10)</th>
<th>비중</th>
<th>누적비중</th>
</tr>
</thead>
<tbody>
<tr>
<td>나이지리아</td>
<td>32.0</td>
<td>41.6</td>
<td>45.7</td>
<td>43.4</td>
<td>44.6</td>
<td>36.8</td>
<td>37.5</td>
<td>39.6</td>
<td>17.0</td>
<td>17.0</td>
</tr>
<tr>
<td>태국</td>
<td>19.1</td>
<td>16.9</td>
<td>22.6</td>
<td>26.9</td>
<td>25.2</td>
<td>30.1</td>
<td>22.0</td>
<td>25.7</td>
<td>11.1</td>
<td>28.1</td>
</tr>
<tr>
<td>브라질</td>
<td>23.3</td>
<td>25.9</td>
<td>26.6</td>
<td>26.5</td>
<td>26.7</td>
<td>24.4</td>
<td>24.5</td>
<td>25.2</td>
<td>10.8</td>
<td>39.0</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16.1</td>
<td>19.3</td>
<td>20.0</td>
<td>20.0</td>
<td>21.6</td>
<td>22.0</td>
<td>23.9</td>
<td>22.5</td>
<td>9.7</td>
<td>48.7</td>
</tr>
<tr>
<td>콩고</td>
<td>16.0</td>
<td>15.0</td>
<td>15.0</td>
<td>15.0</td>
<td>15.0</td>
<td>15.2</td>
<td>15.0</td>
<td>14.0</td>
<td>6.5</td>
<td>25.1</td>
</tr>
<tr>
<td>가나</td>
<td>8.1</td>
<td>9.6</td>
<td>9.6</td>
<td>10.2</td>
<td>11.4</td>
<td>12.2</td>
<td>13.5</td>
<td>12.4</td>
<td>5.3</td>
<td>60.4</td>
</tr>
<tr>
<td>앙골라</td>
<td>4.4</td>
<td>8.8</td>
<td>9.0</td>
<td>9.7</td>
<td>10.1</td>
<td>12.8</td>
<td>13.9</td>
<td>12.2</td>
<td>5.3</td>
<td>65.7</td>
</tr>
<tr>
<td>인도</td>
<td>6.0</td>
<td>7.5</td>
<td>7.9</td>
<td>8.2</td>
<td>9.1</td>
<td>9.6</td>
<td>8.1</td>
<td>8.9</td>
<td>3.6</td>
<td>69.5</td>
</tr>
<tr>
<td>베트남</td>
<td>2.0</td>
<td>6.7</td>
<td>7.8</td>
<td>8.2</td>
<td>8.4</td>
<td>8.6</td>
<td>8.5</td>
<td>8.8</td>
<td>3.8</td>
<td>73.3</td>
</tr>
<tr>
<td>탄자니아</td>
<td>5.3</td>
<td>5.5</td>
<td>6.2</td>
<td>5.2</td>
<td>5.4</td>
<td>5.9</td>
<td>4.4</td>
<td>5.2</td>
<td>2.3</td>
<td>75.6</td>
</tr>
<tr>
<td>우간다</td>
<td>5.0</td>
<td>5.6</td>
<td>4.9</td>
<td>5.0</td>
<td>5.1</td>
<td>5.2</td>
<td>5.3</td>
<td>5.2</td>
<td>2.2</td>
<td>77.8</td>
</tr>
<tr>
<td>모잠비크</td>
<td>5.4</td>
<td>4.8</td>
<td>6.7</td>
<td>5.0</td>
<td>4.1</td>
<td>5.7</td>
<td>5.7</td>
<td>5.1</td>
<td>2.2</td>
<td>80.0</td>
</tr>
<tr>
<td>중국</td>
<td>3.8</td>
<td>4.0</td>
<td>4.3</td>
<td>4.4</td>
<td>4.4</td>
<td>4.5</td>
<td>4.7</td>
<td>4.5</td>
<td>1.9</td>
<td>82.0</td>
</tr>
<tr>
<td>캄보디아</td>
<td>0.1</td>
<td>0.5</td>
<td>2.2</td>
<td>2.2</td>
<td>2.2</td>
<td>3.7</td>
<td>3.5</td>
<td>4.2</td>
<td>3.8</td>
<td>83.6</td>
</tr>
<tr>
<td>알라비</td>
<td>2.8</td>
<td>2.2</td>
<td>2.5</td>
<td>2.3</td>
<td>3.5</td>
<td>3.8</td>
<td>3.8</td>
<td>3.8</td>
<td>1.6</td>
<td>85.2</td>
</tr>
<tr>
<td>베냉</td>
<td>2.4</td>
<td>2.9</td>
<td>2.5</td>
<td>2.8</td>
<td>3.6</td>
<td>4.0</td>
<td>3.6</td>
<td>3.7</td>
<td>1.6</td>
<td>86.8</td>
</tr>
<tr>
<td>아프리카스토르</td>
<td>2.5</td>
<td>3.0</td>
<td>3.0</td>
<td>3.0</td>
<td>3.0</td>
<td>3.0</td>
<td>3.0</td>
<td>3.0</td>
<td>1.3</td>
<td>88.1</td>
</tr>
<tr>
<td>카메룬</td>
<td>1.9</td>
<td>2.4</td>
<td>2.7</td>
<td>2.8</td>
<td>2.9</td>
<td>3.0</td>
<td>3.0</td>
<td>3.0</td>
<td>1.3</td>
<td>89.4</td>
</tr>
<tr>
<td>파라과이</td>
<td>2.7</td>
<td>4.8</td>
<td>4.8</td>
<td>4.8</td>
<td>2.2</td>
<td>2.6</td>
<td>2.6</td>
<td>2.5</td>
<td>1.1</td>
<td>90.5</td>
</tr>
<tr>
<td>코트디부아르</td>
<td>2.1</td>
<td>2.2</td>
<td>2.3</td>
<td>2.3</td>
<td>2.5</td>
<td>2.3</td>
<td>2.4</td>
<td>2.4</td>
<td>1.0</td>
<td>91.5</td>
</tr>
</tbody>
</table>

세계에서 카사바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이다. 나이지리아는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2008~2010년 평균 생산량은 39.6백만 톤으로 전 세계 카사바의 17.0%를 생산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 이어 태국과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각각 25.7백만 톤, 25.2백만 톤, 22.5백만 톤을 생산하여 11.1%, 10.8%, 9.7%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비하여 생산 상장률이 두드러지는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앙골라로 향후 생산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캄보디아는 10년간 연평균 277.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생산은 8.8백만 톤 순위이다. 베트남과 앙골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32.9%, 21.3%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은 각각 12.2백만 톤, 12.2백만 톤이다. 지난 10년간 생산이 감소한 국가는 콩고, 탄자니아, 파라과이 3개국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카사바 생산량도 가장 많고 재배면적도 가장 넓은 국가이다. 2008~2010년 평균 나이지리아의 카사바 재배면적은 3.34백만 ha로 세계 비중의 18%

표 4 국가별 카사바 재배면적

<table>
<thead>
<tr>
<th>국가명</th>
<th>2000</th>
<th>2005</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 평균(08~10)</th>
<th>비중 누적비중</th>
</tr>
</thead>
<tbody>
<tr>
<td>나이지리아</td>
<td>3.30</td>
<td>3.78</td>
<td>3.81</td>
<td>3.88</td>
<td>3.78</td>
<td>3.13</td>
<td>3.03</td>
<td>18.0</td>
</tr>
<tr>
<td>콩고</td>
<td>1.97</td>
<td>1.85</td>
<td>1.88</td>
<td>1.85</td>
<td>1.85</td>
<td>1.85</td>
<td>1.85</td>
<td>10.0</td>
</tr>
<tr>
<td>브라질</td>
<td>1.72</td>
<td>1.90</td>
<td>1.90</td>
<td>1.89</td>
<td>1.89</td>
<td>1.76</td>
<td>1.79</td>
<td>9.7</td>
</tr>
<tr>
<td>태국</td>
<td>1.13</td>
<td>0.99</td>
<td>1.07</td>
<td>1.17</td>
<td>1.18</td>
<td>1.33</td>
<td>1.17</td>
<td>6.6</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1.28</td>
<td>1.21</td>
<td>1.23</td>
<td>1.20</td>
<td>1.19</td>
<td>1.18</td>
<td>1.18</td>
<td>6.4</td>
</tr>
<tr>
<td>앙골라</td>
<td>0.53</td>
<td>0.75</td>
<td>0.77</td>
<td>0.64</td>
<td>0.68</td>
<td>0.99</td>
<td>0.88</td>
<td>5.5</td>
</tr>
<tr>
<td>탄자니아</td>
<td>0.81</td>
<td>0.91</td>
<td>0.98</td>
<td>0.78</td>
<td>0.84</td>
<td>1.08</td>
<td>0.86</td>
<td>5.0</td>
</tr>
<tr>
<td>가나</td>
<td>0.66</td>
<td>0.75</td>
<td>0.79</td>
<td>0.80</td>
<td>0.84</td>
<td>0.89</td>
<td>0.88</td>
<td>4.7</td>
</tr>
<tr>
<td>모잠비크</td>
<td>0.93</td>
<td>1.11</td>
<td>0.86</td>
<td>0.65</td>
<td>0.53</td>
<td>0.94</td>
<td>0.95</td>
<td>4.3</td>
</tr>
<tr>
<td>베트남</td>
<td>0.24</td>
<td>0.43</td>
<td>0.48</td>
<td>0.50</td>
<td>0.56</td>
<td>0.51</td>
<td>0.50</td>
<td>2.8</td>
</tr>
<tr>
<td>우간다</td>
<td>0.40</td>
<td>0.39</td>
<td>0.38</td>
<td>0.39</td>
<td>0.40</td>
<td>0.41</td>
<td>0.42</td>
<td>2.2</td>
</tr>
<tr>
<td>미나스가스카르</td>
<td>0.35</td>
<td>0.39</td>
<td>0.39</td>
<td>0.39</td>
<td>0.40</td>
<td>0.36</td>
<td>0.38</td>
<td>2.1</td>
</tr>
<tr>
<td>코트디부아르</td>
<td>0.27</td>
<td>0.27</td>
<td>0.31</td>
<td>0.32</td>
<td>0.33</td>
<td>0.34</td>
<td>0.35</td>
<td>1.8</td>
</tr>
<tr>
<td>중국</td>
<td>0.24</td>
<td>0.26</td>
<td>0.27</td>
<td>0.27</td>
<td>0.27</td>
<td>0.28</td>
<td>0.27</td>
<td>1.5</td>
</tr>
<tr>
<td>베냉</td>
<td>0.22</td>
<td>0.22</td>
<td>0.17</td>
<td>0.20</td>
<td>0.27</td>
<td>0.26</td>
<td>0.29</td>
<td>1.4</td>
</tr>
<tr>
<td>인도</td>
<td>0.22</td>
<td>0.24</td>
<td>0.24</td>
<td>0.26</td>
<td>0.27</td>
<td>0.28</td>
<td>0.23</td>
<td>1.4</td>
</tr>
<tr>
<td>카메룬</td>
<td>0.14</td>
<td>0.23</td>
<td>0.25</td>
<td>0.20</td>
<td>0.21</td>
<td>0.21</td>
<td>0.21</td>
<td>1.1</td>
</tr>
<tr>
<td>말라위</td>
<td>0.18</td>
<td>0.15</td>
<td>0.16</td>
<td>0.17</td>
<td>0.18</td>
<td>0.19</td>
<td>0.20</td>
<td>1.0</td>
</tr>
<tr>
<td>캄보디아</td>
<td>0.02</td>
<td>0.03</td>
<td>0.10</td>
<td>0.11</td>
<td>0.18</td>
<td>0.16</td>
<td>0.18</td>
<td>0.9</td>
</tr>
<tr>
<td>파라과이</td>
<td>0.20</td>
<td>0.29</td>
<td>0.30</td>
<td>0.30</td>
<td>0.17</td>
<td>0.18</td>
<td>0.18</td>
<td>0.9</td>
</tr>
</tbody>
</table>

세계 농식품 산업 동향

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 이어 콩고, 브라질, 태국이 각각 1.85백만 ha, 1.81백만 ha, 1.23백만 ha로 세계 카사바 재배면적의 10.0%, 9.7%, 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콩고는 인도네시아보다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은 브라질보다도 높다. 이는 콩고의 재배 단수가 9.2톤/ha로 인도네시아의 재배 단수 19.0톤/ha보다 낮기 때문이다. 재배면적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1.5% 성장하였다. 그 외에 베트남과 양골라의 재배면적이 연평균 각각 10.9%, 9.6% 성장하였다. 반면 재배면적이 감소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콩고,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파라과이이다.

3. 카사바 교역 동향 5)

카사바 교역 동향은 HS-6단위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카사바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교역이 되고 있는데, HS071410(카사바 신선, 건조), HS110814(카사바 전분), HS190300(타피오카 및 대용품으로 만든 조제식료품)으로 구분된다. HS071410는 카사바, 칩, 카사바 팬릿 등의 형태로 교역이 되고 있으며, 카사바 칩은 주정용, 에탄올 제조용, 사료용으로, 카사바 팬릿은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HS110814는 카사바 전분은 제지, 골판지 등을 만드는 공업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HS190300은 앞에서 언급한 버블티에 들어있는 타피오카 팁과 같이 조제식료품에 해당한다.

3.1. 카사바 수출

카사바 신선/건조(HS071410)의 전 세계 수출량(2008~2010년 평균)은 4,320.4천 톤이며 수출액은 925백만 달러이다. 주요 수출국은 태국으로 세계 수출량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베트남, 콜보디아 등이 카사바 신선/건조를 수출하고 있다. 카사바를 생산하지 않는 네덜란드가 주요 수출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네덜란드는 카사바를 태국, 가나, 브라질 등에서 수입 후 가공하여 벨기에,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로 재수출하고 있다.

5) 카사바 교역에 대한 자료는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다. 수출량과 수출액에 비하여 수입량과 수입액이 더 많은데 FAO STAT와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자료 모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수출국가들이(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중국의 카사바 주요 수입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베트남으로의 2010년 카사바 신선/건조의 수입량이 1,036.4천 톤인 반면 베트남의 수출은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5 카사바 신선/건조(HS070410) 수출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구분</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Avg08-10</th>
</tr>
</thead>
<tbody>
<tr>
<td></td>
<td>물량(천톤)</td>
<td>4,782.2</td>
<td>5,452.4</td>
<td>3,659.8</td>
<td>4,691.0</td>
<td>4,610.5</td>
<td>4,320.4</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661.0</td>
<td>903.8</td>
<td>825.2</td>
<td>1,020.6</td>
<td>929.2</td>
<td>925.0</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4</td>
<td>0.17</td>
<td>0.23</td>
<td>0.22</td>
<td>0.20</td>
<td>0.21</td>
</tr>
<tr>
<td>태국</td>
<td>물량(천톤)</td>
<td>4,233.9</td>
<td>4,556.8</td>
<td>2,882.8</td>
<td>3,457.3</td>
<td>4,273.4</td>
<td>3,837.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454.0</td>
<td>556.8</td>
<td>477.5</td>
<td>605.2</td>
<td>614.6</td>
<td>632.5</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1</td>
<td>0.12</td>
<td>0.17</td>
<td>0.14</td>
<td>0.19</td>
<td>0.16</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물량(천톤)</td>
<td>122.0</td>
<td>204.7</td>
<td>129.7</td>
<td>168.1</td>
<td>145.2</td>
<td>147.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8</td>
<td>31.3</td>
<td>20.8</td>
<td>25.2</td>
<td>32.7</td>
<td>26.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1</td>
<td>0.12</td>
<td>0.17</td>
<td>0.14</td>
<td>0.19</td>
<td>0.16</td>
</tr>
<tr>
<td>네덜란드</td>
<td>물량(천톤)</td>
<td>4,213.9</td>
<td>4,558.8</td>
<td>2,882.8</td>
<td>4,357.3</td>
<td>4,273.4</td>
<td>3,837.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454.0</td>
<td>556.8</td>
<td>477.5</td>
<td>605.2</td>
<td>614.6</td>
<td>632.5</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1</td>
<td>0.12</td>
<td>0.17</td>
<td>0.14</td>
<td>0.19</td>
<td>0.16</td>
</tr>
<tr>
<td>코스타리카</td>
<td>물량(천톤)</td>
<td>88.4</td>
<td>90.5</td>
<td>76.2</td>
<td>59.9</td>
<td>92.4</td>
<td>76.2</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8</td>
<td>31.3</td>
<td>20.8</td>
<td>25.2</td>
<td>32.7</td>
<td>26.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1</td>
<td>0.12</td>
<td>0.17</td>
<td>0.14</td>
<td>0.19</td>
<td>0.16</td>
</tr>
<tr>
<td>베트남</td>
<td>물량(천톤)</td>
<td>132.0</td>
<td>204.7</td>
<td>129.7</td>
<td>168.1</td>
<td>145.2</td>
<td>147.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8</td>
<td>31.3</td>
<td>20.8</td>
<td>25.2</td>
<td>32.7</td>
<td>26.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1</td>
<td>0.12</td>
<td>0.17</td>
<td>0.14</td>
<td>0.19</td>
<td>0.16</td>
</tr>
<tr>
<td>캄보디아</td>
<td>물량(천톤)</td>
<td>88.4</td>
<td>90.5</td>
<td>76.2</td>
<td>59.9</td>
<td>92.4</td>
<td>76.2</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8</td>
<td>31.3</td>
<td>20.8</td>
<td>25.2</td>
<td>32.7</td>
<td>26.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1</td>
<td>0.12</td>
<td>0.17</td>
<td>0.14</td>
<td>0.19</td>
<td>0.16</td>
</tr>
<tr>
<td>벨기에</td>
<td>물량(천톤)</td>
<td>9.1</td>
<td>146.1</td>
<td>254.1</td>
<td>–</td>
<td>9.4</td>
<td>87.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8.5</td>
<td>48.5</td>
<td>77.5</td>
<td>13.4</td>
<td>13.9</td>
<td>34.9</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94</td>
<td>0.33</td>
<td>0.31</td>
<td>–</td>
<td>1.47</td>
<td>0.40</td>
</tr>
<tr>
<td>파리피아</td>
<td>물량(천톤)</td>
<td>2.8</td>
<td>2.8</td>
<td>22.3</td>
<td>66.8</td>
<td>24.0</td>
<td>37.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6</td>
<td>0.6</td>
<td>0.5</td>
<td>0.9</td>
<td>0.4</td>
<td>0.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1</td>
<td>0.21</td>
<td>0.21</td>
<td>0.02</td>
<td>0.02</td>
<td>0.02</td>
</tr>
<tr>
<td>멕시코</td>
<td>물량(천톤)</td>
<td>5.5</td>
<td>114.3</td>
<td>33.2</td>
<td>3.6</td>
<td>0.5</td>
<td>12.4</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1</td>
<td>23.0</td>
<td>9.1</td>
<td>1.3</td>
<td>0.5</td>
<td>3.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0</td>
<td>0.20</td>
<td>0.27</td>
<td>0.36</td>
<td>1.06</td>
<td>0.29</td>
</tr>
<tr>
<td>우간다</td>
<td>물량(천톤)</td>
<td>6.5</td>
<td>6.6</td>
<td>2.3</td>
<td>–</td>
<td>30.8</td>
<td>11.0</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2</td>
<td>0.3</td>
<td>0.2</td>
<td>–</td>
<td>2.6</td>
<td>0.9</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03</td>
<td>0.04</td>
<td>0.07</td>
<td>–</td>
<td>0.08</td>
<td>0.08</td>
</tr>
<tr>
<td></td>
<td>물량(천톤)</td>
<td>0.5</td>
<td>0.1</td>
<td>6.1</td>
<td>9.3</td>
<td>9.1</td>
<td>8.2</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2</td>
<td>0.0</td>
<td>1.0</td>
<td>1.2</td>
<td>3.1</td>
<td>1.8</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35</td>
<td>0.25</td>
<td>0.16</td>
<td>0.13</td>
<td>0.34</td>
<td>0.21</td>
</tr>
</tbody>
</table>

주: 수출액은 있으나 수출량이 없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카사바 전분(HS110814)의 전 세계 수출량(2008~2010년 평균)은 2,046.5천 톤이며 수출액은 764.2백만 달러이다. 수출량은 카사바 신선/건조의 절반 수준이나 수출액은 80% 수준이다. 이는 가공이 더 많이 된 카사바 전분의 단가가 카사바/신선/건조 보다 높기 때문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태국, 베트남이며 세계 수출량의 약 94%를 태국, 약
세계 농식품 산업 동향

76%과 베트남(약 18%)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홍콩,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라과이 등의 수출국이 있다.

표 6 카사바 전분(HS110814) 수출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구분</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Avg08-10</th>
</tr>
</thead>
<tbody>
<tr>
<td>세계</td>
<td>물량(천톤)</td>
<td>2,334.8</td>
<td>2,248.0</td>
<td>1,821.6</td>
<td>2,504.2</td>
<td>1,813.7</td>
<td>2,046.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536.0</td>
<td>647.8</td>
<td>702.5</td>
<td>773.1</td>
<td>871.7</td>
<td>764.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3</td>
<td>0.29</td>
<td>0.39</td>
<td>0.31</td>
<td>0.45</td>
<td>0.37</td>
</tr>
<tr>
<td>태국</td>
<td>물량(천톤)</td>
<td>1,614.4</td>
<td>1,422.1</td>
<td>1,216.8</td>
<td>1,743.1</td>
<td>1,684.2</td>
<td>1,551.4</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2</td>
<td>0.27</td>
<td>0.36</td>
<td>0.27</td>
<td>0.44</td>
<td>0.36</td>
</tr>
<tr>
<td>베트남</td>
<td>물량(천톤)</td>
<td>580.0</td>
<td>664.0</td>
<td>472.8</td>
<td>639.5</td>
<td>–</td>
<td>370.1</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5</td>
<td>0.30</td>
<td>0.43</td>
<td>0.39</td>
<td>–</td>
<td>0.41</td>
</tr>
<tr>
<td>홍콩</td>
<td>물량(천톤)</td>
<td>70.9</td>
<td>56.4</td>
<td>30.7</td>
<td>23.6</td>
<td>34.3</td>
<td>29.6</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8</td>
<td>0.28</td>
<td>0.35</td>
<td>0.37</td>
<td>0.41</td>
<td>0.38</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물량(천톤)</td>
<td>3.4</td>
<td>22.9</td>
<td>37.0</td>
<td>13.2</td>
<td>23.8</td>
<td>24.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34</td>
<td>0.35</td>
<td>0.41</td>
<td>0.35</td>
<td>0.54</td>
<td>0.44</td>
</tr>
<tr>
<td>캄보디아</td>
<td>물량(천톤)</td>
<td>23.6</td>
<td>23.6</td>
<td>10.3</td>
<td>31.3</td>
<td>13.7</td>
<td>18.4</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8</td>
<td>0.18</td>
<td>0.15</td>
<td>0.15</td>
<td>0.18</td>
<td>0.18</td>
</tr>
<tr>
<td>파라과이</td>
<td>물량(천톤)</td>
<td>18.4</td>
<td>26.5</td>
<td>17.4</td>
<td>8.3</td>
<td>28.7</td>
<td>17.1</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84</td>
<td>0.84</td>
<td>0.42</td>
<td>0.39</td>
<td>0.48</td>
<td>0.44</td>
</tr>
<tr>
<td>네덜란드</td>
<td>물량(천톤)</td>
<td>1,143.3</td>
<td>2,400.7</td>
<td>0.99</td>
<td>0.39</td>
<td>0.67</td>
<td>0.59</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41</td>
<td>0.54</td>
<td>0.71</td>
<td>0.60</td>
<td>1.03</td>
<td>0.72</td>
</tr>
<tr>
<td>브라질</td>
<td>물량(천톤)</td>
<td>11.7</td>
<td>12.9</td>
<td>9.3</td>
<td>9.4</td>
<td>3.8</td>
<td>7.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41</td>
<td>0.54</td>
<td>0.71</td>
<td>0.60</td>
<td>1.03</td>
<td>0.72</td>
</tr>
<tr>
<td>대한</td>
<td>물량(천톤)</td>
<td>3.1</td>
<td>3.0</td>
<td>3.0</td>
<td>4.0</td>
<td>3.9</td>
<td>5.4</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41</td>
<td>0.54</td>
<td>0.71</td>
<td>0.60</td>
<td>1.03</td>
<td>0.72</td>
</tr>
<tr>
<td>에콰도르</td>
<td>물량(천톤)</td>
<td>0.8</td>
<td>3.7</td>
<td>1.6</td>
<td>2.6</td>
<td>4.0</td>
<td>2.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45.9</td>
<td>202.3</td>
<td>205.3</td>
<td>249.8</td>
<td>–</td>
<td>15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08</td>
<td>0.06</td>
<td>0.06</td>
<td>0.05</td>
<td>0.05</td>
<td>0.05</td>
</tr>
</tbody>
</table>

자료: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카사바 조제식품(타피오카, HS190300)의 전 세계 수출량(2008~2010년 평균)은 57.6천 톤이며 수출액은 48.5백만 달러이다. 수출량은 카사바 신선/건조이나 카사바 전

8 | 2012. 9
분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태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홍콩 등이 있다. 태국이 전 세계 수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중국이 14%, 대만이 10%, 인도네시아가 9%를 차지하고 있다. 카사바 조제식료품은 카사바 신선/건조와 카사바 전분에 비해 수출국이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표 7 카사바 조제식료품(타피오카, HS190300) 수출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구분</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Avg08-10</th>
</tr>
</thead>
<tbody>
<tr>
<td></td>
<td>물량(천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단가($/kg)</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세계</td>
<td>물량(천톤)</td>
<td>78.9</td>
<td>64.0</td>
<td>55.4</td>
<td>56.4</td>
<td>60.9</td>
<td>57.6</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40.4</td>
<td>42.0</td>
<td>45.3</td>
<td>45.2</td>
<td>55.0</td>
<td>48.5</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51</td>
<td>0.66</td>
<td>0.82</td>
<td>0.80</td>
<td>0.90</td>
<td>0.84</td>
</tr>
<tr>
<td>태국</td>
<td>물량(천톤)</td>
<td>25.8</td>
<td>23.4</td>
<td>20.9</td>
<td>22.4</td>
<td>25.0</td>
<td>22.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9.0</td>
<td>9.4</td>
<td>11.1</td>
<td>10.5</td>
<td>17.6</td>
<td>13.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35</td>
<td>0.40</td>
<td>0.53</td>
<td>0.47</td>
<td>0.71</td>
<td>0.58</td>
</tr>
<tr>
<td>중국</td>
<td>물량(천톤)</td>
<td>9.9</td>
<td>10.1</td>
<td>7.6</td>
<td>9.1</td>
<td>7.4</td>
<td>8.0</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9.7</td>
<td>10.0</td>
<td>8.5</td>
<td>9.6</td>
<td>8.3</td>
<td>8.8</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98</td>
<td>0.99</td>
<td>1.12</td>
<td>1.05</td>
<td>1.12</td>
<td>1.10</td>
</tr>
<tr>
<td>대만</td>
<td>물량(천톤)</td>
<td>3.0</td>
<td>3.8</td>
<td>4.4</td>
<td>5.4</td>
<td>7.6</td>
<td>5.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3.3</td>
<td>4.1</td>
<td>5.5</td>
<td>6.2</td>
<td>9.3</td>
<td>7.0</td>
</tr>
<tr>
<td></td>
<td>단가($/kg)</td>
<td>1.08</td>
<td>1.10</td>
<td>1.26</td>
<td>1.15</td>
<td>1.23</td>
<td>1.21</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물량(천톤)</td>
<td>13.2</td>
<td>10.7</td>
<td>5.0</td>
<td>2.5</td>
<td>8.4</td>
<td>5.3</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3.0</td>
<td>3.8</td>
<td>2.3</td>
<td>1.0</td>
<td>3.4</td>
<td>2.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3</td>
<td>0.35</td>
<td>0.45</td>
<td>0.42</td>
<td>0.41</td>
<td>0.42</td>
</tr>
<tr>
<td>인도</td>
<td>물량(천톤)</td>
<td>2.0</td>
<td>1.8</td>
<td>4.5</td>
<td>2.0</td>
<td>0.5</td>
<td>2.3</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2</td>
<td>1.3</td>
<td>2.7</td>
<td>1.2</td>
<td>0.6</td>
<td>1.5</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60</td>
<td>0.73</td>
<td>0.59</td>
<td>0.63</td>
<td>1.12</td>
<td>0.64</td>
</tr>
<tr>
<td>홍콩</td>
<td>물량(천톤)</td>
<td>4.1</td>
<td>3.1</td>
<td>2.8</td>
<td>1.3</td>
<td>1.0</td>
<td>1.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3</td>
<td>1.0</td>
<td>1.1</td>
<td>0.5</td>
<td>0.4</td>
<td>0.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32</td>
<td>0.33</td>
<td>0.40</td>
<td>0.43</td>
<td>0.42</td>
<td>0.41</td>
</tr>
<tr>
<td>브라질</td>
<td>물량(천톤)</td>
<td>1.5</td>
<td>1.4</td>
<td>1.6</td>
<td>1.6</td>
<td>1.6</td>
<td>1.6</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0</td>
<td>1.0</td>
<td>1.5</td>
<td>1.6</td>
<td>1.9</td>
<td>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67</td>
<td>0.72</td>
<td>0.94</td>
<td>0.99</td>
<td>1.16</td>
<td>1.03</td>
</tr>
<tr>
<td>네덜란드</td>
<td>물량(천톤)</td>
<td>0.8</td>
<td>1.0</td>
<td>1.1</td>
<td>2.8</td>
<td>0.8</td>
<td>1.6</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2</td>
<td>1.6</td>
<td>2.2</td>
<td>2.3</td>
<td>1.9</td>
<td>2.1</td>
</tr>
<tr>
<td></td>
<td>단가($/kg)</td>
<td>1.43</td>
<td>1.54</td>
<td>1.95</td>
<td>0.81</td>
<td>2.24</td>
<td>1.32</td>
</tr>
<tr>
<td>프랑스</td>
<td>물량(천톤)</td>
<td>1.3</td>
<td>1.4</td>
<td>1.4</td>
<td>1.4</td>
<td>1.9</td>
<td>1.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2.0</td>
<td>2.3</td>
<td>2.6</td>
<td>2.6</td>
<td>3.3</td>
<td>2.8</td>
</tr>
<tr>
<td></td>
<td>단가($/kg)</td>
<td>1.49</td>
<td>1.66</td>
<td>1.91</td>
<td>1.86</td>
<td>1.79</td>
<td>1.84</td>
</tr>
<tr>
<td>코트디부아르</td>
<td>물량(천톤)</td>
<td>0.6</td>
<td>0.6</td>
<td>1.2</td>
<td>1.5</td>
<td>1.8</td>
<td>1.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3</td>
<td>0.3</td>
<td>0.5</td>
<td>0.7</td>
<td>0.9</td>
<td>0.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47</td>
<td>0.53</td>
<td>0.44</td>
<td>0.50</td>
<td>0.52</td>
<td>0.49</td>
</tr>
</tbody>
</table>

자료: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3.2. 카사바 수입

카사바 신선/건조 (HS071410)의 전 세계 수입량(2008~2010년 평균)은 6,076.7천 톤이며 수입액은 1,177.9백만 달러이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서 세계 수입량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생산도 하고 있지만 사료 및 에탄올 수요 증대로 인하여 수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 한국, 네덜란드, 태국, 스페인, 벨기에 등이 카사바 신선/건조를 수입하고 있다. 카사바 주요 수출국인 태국도 카사바 신선/건조를 수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량을 캄보디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표 8 카사바 신선/건조(HS071410) 수입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구분</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Avg08-10</th>
</tr>
</thead>
<tbody>
<tr>
<td>세계</td>
<td>물량(천톤)</td>
<td>5,594.4</td>
<td>6,832.4</td>
<td>4,645.9</td>
<td>7,207.3</td>
<td>6,376.9</td>
<td>6,076.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6</td>
<td>0.23</td>
<td>0.16</td>
<td>0.21</td>
<td>0.19</td>
<td></td>
</tr>
<tr>
<td>중국</td>
<td>물량(천톤)</td>
<td>4,950.4</td>
<td>4,619.1</td>
<td>1,976.3</td>
<td>6,107.2</td>
<td>5,762.7</td>
<td>4,615.4</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4</td>
<td>0.20</td>
<td>0.15</td>
<td>0.21</td>
<td></td>
<td></td>
</tr>
<tr>
<td>한국</td>
<td>물량(천톤)</td>
<td>268.3</td>
<td>301.8</td>
<td>899.7</td>
<td>551.7</td>
<td>293.2</td>
<td>581.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4</td>
<td>0.22</td>
<td>0.17</td>
<td>0.18</td>
<td></td>
<td></td>
</tr>
<tr>
<td>네덜란드</td>
<td>물량(천톤)</td>
<td>30.6</td>
<td>700.7</td>
<td>667.6</td>
<td>9.7</td>
<td>9.6</td>
<td>230.0</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9</td>
<td>0.21</td>
<td>0.91</td>
<td>0.23</td>
<td></td>
<td></td>
</tr>
<tr>
<td>태국</td>
<td>물량(천톤)</td>
<td>0.3</td>
<td>29.0</td>
<td>65.3</td>
<td>324.2</td>
<td>130.6</td>
<td>190.0</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08</td>
<td>0.35</td>
<td>1.00</td>
<td>0.23</td>
<td></td>
<td></td>
</tr>
<tr>
<td>스페인</td>
<td>물량(천톤)</td>
<td>153.6</td>
<td>437.3</td>
<td>280.6</td>
<td>9.6</td>
<td>8.9</td>
<td>90.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6</td>
<td>0.25</td>
<td>0.95</td>
<td>0.28</td>
<td></td>
<td></td>
</tr>
<tr>
<td>벨기에</td>
<td>물량(천톤)</td>
<td>38.4</td>
<td>344.7</td>
<td>239.1</td>
<td>19.5</td>
<td>1.3</td>
<td>86.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6</td>
<td>0.24</td>
<td>0.78</td>
<td>0.24</td>
<td></td>
<td></td>
</tr>
<tr>
<td>미국</td>
<td>물량(천톤)</td>
<td>63.0</td>
<td>63.5</td>
<td>59.5</td>
<td>62.0</td>
<td>64.7</td>
<td>62.1</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51</td>
<td>0.57</td>
<td>3.3</td>
<td>1.0</td>
<td>20.5</td>
<td></td>
</tr>
<tr>
<td>프랑스</td>
<td>물량(천톤)</td>
<td>5.1</td>
<td>4.6</td>
<td>33.5</td>
<td>3.3</td>
<td>3.6</td>
<td>33.5</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92</td>
<td>0.27</td>
<td>1.08</td>
<td>1.10</td>
<td>0.33</td>
<td></td>
</tr>
<tr>
<td>일본</td>
<td>물량(천톤)</td>
<td>19.9</td>
<td>27.4</td>
<td>36.8</td>
<td>31.9</td>
<td>20.6</td>
<td>29.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32</td>
<td>0.51</td>
<td>5.1</td>
<td>4.2</td>
<td>6.2</td>
<td></td>
</tr>
<tr>
<td>독일</td>
<td>물량(천톤)</td>
<td>0.1</td>
<td>0.19</td>
<td>0.25</td>
<td>0.16</td>
<td>0.21</td>
<td></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td>
<td>0.2</td>
<td>0.2</td>
<td>0.2</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카사바 전분(HS110814)의 전 세계 수입량(2008~2010년 평균)은 1,864.8천 톤이며 수입액은 714.3백만 달러이다. 수입량은 카사바 신선/건조의 30% 수준이나, 수입액은 60% 수준이다. 카사바 전분의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36%), 대만(17%), 인도네시아(11%), 말레이시아(8%), 일본(7%) 등이다. 중국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태국에서 주로 카사바 전분을 수입하고 있다.

표 9 세계 카사바 전분(HS110814) 수입 동향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구분</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Avg08-10</th>
</tr>
</thead>
<tbody>
<tr>
<td>세계</td>
<td>물량(천톤)</td>
<td>2,131.9</td>
<td>2,037.1</td>
<td>1,628.6</td>
<td>2,051.5</td>
<td>1,914.3</td>
<td>1,864.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507.0</td>
<td>602.1</td>
<td>641.3</td>
<td>610.0</td>
<td>891.6</td>
<td>714.3</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4</td>
<td>0.30</td>
<td>0.39</td>
<td>0.30</td>
<td>0.47</td>
<td>0.38</td>
</tr>
<tr>
<td>중국</td>
<td>물량(천톤)</td>
<td>772.9</td>
<td>624.8</td>
<td>462.9</td>
<td>832.0</td>
<td>734.6</td>
<td>676.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76.4</td>
<td>173.9</td>
<td>172.5</td>
<td>238.5</td>
<td>330.7</td>
<td>247.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3</td>
<td>0.28</td>
<td>0.37</td>
<td>0.29</td>
<td>0.46</td>
<td>0.37</td>
</tr>
<tr>
<td>대만</td>
<td>물량(천톤)</td>
<td>365.8</td>
<td>355.5</td>
<td>313.5</td>
<td>366.0</td>
<td>291.1</td>
<td>323.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81.6</td>
<td>90.0</td>
<td>113.0</td>
<td>97.4</td>
<td>126.6</td>
<td>114.3</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2</td>
<td>0.28</td>
<td>0.36</td>
<td>0.30</td>
<td>0.46</td>
<td>0.35</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물량(천톤)</td>
<td>304.9</td>
<td>306.3</td>
<td>158.1</td>
<td>168.6</td>
<td>294.6</td>
<td>206.6</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70.1</td>
<td>77.8</td>
<td>57.9</td>
<td>49.6</td>
<td>120.7</td>
<td>76.1</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2</td>
<td>0.28</td>
<td>0.35</td>
<td>0.27</td>
<td>0.46</td>
<td>0.37</td>
</tr>
<tr>
<td>말레이시아</td>
<td>물량(천톤)</td>
<td>146.7</td>
<td>119.9</td>
<td>124.4</td>
<td>167.5</td>
<td>178.3</td>
<td>156.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32.5</td>
<td>35.7</td>
<td>43.6</td>
<td>45.3</td>
<td>83.9</td>
<td>57.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2</td>
<td>0.28</td>
<td>0.36</td>
<td>0.30</td>
<td>0.47</td>
<td>0.37</td>
</tr>
<tr>
<td>일본</td>
<td>물량(천톤)</td>
<td>122.5</td>
<td>143.1</td>
<td>150.3</td>
<td>137.1</td>
<td>110.3</td>
<td>130.9</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29.4</td>
<td>45.2</td>
<td>67.1</td>
<td>40.6</td>
<td>49.4</td>
<td>50.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4</td>
<td>0.32</td>
<td>0.41</td>
<td>0.30</td>
<td>0.47</td>
<td>0.39</td>
</tr>
<tr>
<td>필리핀</td>
<td>물량(천톤)</td>
<td>58.0</td>
<td>56.8</td>
<td>72.8</td>
<td>92.5</td>
<td>60.0</td>
<td>75.1</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3.4</td>
<td>13.6</td>
<td>23.0</td>
<td>24.6</td>
<td>26.0</td>
<td>24.5</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3</td>
<td>0.24</td>
<td>0.32</td>
<td>0.27</td>
<td>0.43</td>
<td>0.33</td>
</tr>
<tr>
<td>싱가포르</td>
<td>물량(천톤)</td>
<td>48.8</td>
<td>44.8</td>
<td>45.2</td>
<td>48.8</td>
<td>49.4</td>
<td>47.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1.7</td>
<td>13.8</td>
<td>18.8</td>
<td>14.6</td>
<td>25.4</td>
<td>19.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4</td>
<td>0.31</td>
<td>0.42</td>
<td>0.30</td>
<td>0.51</td>
<td>0.41</td>
</tr>
<tr>
<td>미국</td>
<td>물량(천톤)</td>
<td>24.9</td>
<td>26.2</td>
<td>34.7</td>
<td>25.2</td>
<td>22.0</td>
<td>31.1</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1.2</td>
<td>11.7</td>
<td>15.3</td>
<td>13.2</td>
<td>14.0</td>
<td>19.3</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45</td>
<td>0.44</td>
<td>0.55</td>
<td>0.52</td>
<td>0.76</td>
<td>0.62</td>
</tr>
<tr>
<td>총공</td>
<td>물량(천톤)</td>
<td>128.8</td>
<td>143.3</td>
<td>115.8</td>
<td>80.0</td>
<td>14.0</td>
<td>11.2</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2.8</td>
<td>14.3</td>
<td>11.5</td>
<td>8.0</td>
<td>14.0</td>
<td>11.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2</td>
<td>0.29</td>
<td>0.36</td>
<td>0.27</td>
<td>0.48</td>
<td>0.37</td>
</tr>
<tr>
<td>남아공</td>
<td>물량(천톤)</td>
<td>6.7</td>
<td>7.2</td>
<td>10.0</td>
<td>7.1</td>
<td>10.2</td>
<td>9.1</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27</td>
<td>0.27</td>
<td>0.40</td>
<td>0.30</td>
<td>0.52</td>
<td>0.41</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27</td>
<td>0.27</td>
<td>0.40</td>
<td>0.30</td>
<td>0.52</td>
<td>0.41</td>
</tr>
</tbody>
</table>

자료 :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카사바 조제식료품(타피오카, HS190300)의 전 세계 수입량(2008~2010년 평균)은 66.1천 톤이며 수출액은 53.3백만 달러이다. 카사바 세 가지 품목분류 중 단가가
0.81$/kg으로 가장 높다. 그러나 수입량은 카사바 신선/건조나 카사바 전분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브루니카파소,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이 있다. 미국은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가나, 필리핀 등으로부터 카사바 조제식료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체 카사바 조제식료품 수입에서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이다.

<table>
<thead>
<tr>
<th>국가</th>
<th>구분</th>
<th>2006</th>
<th>2007</th>
<th>2008</th>
<th>2009</th>
<th>2010</th>
<th>Avg08-10</th>
</tr>
</thead>
<tbody>
<tr>
<td>세계</td>
<td>물량(천톤)</td>
<td>63.1</td>
<td>92.5</td>
<td>75.8</td>
<td>62.7</td>
<td>60.0</td>
<td>66.1</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36.2</td>
<td>49.4</td>
<td>55.2</td>
<td>49.8</td>
<td>55.0</td>
<td>53.3</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57</td>
<td>0.53</td>
<td>0.73</td>
<td>0.79</td>
<td>0.92</td>
<td>0.81</td>
</tr>
<tr>
<td>미국</td>
<td>물량(천톤)</td>
<td>10.3</td>
<td>13.9</td>
<td>13.7</td>
<td>11.4</td>
<td>10.8</td>
<td>12.0</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8.3</td>
<td>10.2</td>
<td>13.2</td>
<td>10.8</td>
<td>11.3</td>
<td>11.7</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80</td>
<td>0.73</td>
<td>0.96</td>
<td>0.94</td>
<td>1.04</td>
<td>0.98</td>
</tr>
<tr>
<td>부르키나파소</td>
<td>물량(천톤)</td>
<td>0.5</td>
<td>0.5</td>
<td>1.2</td>
<td>1.1</td>
<td>1.5</td>
<td>1.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1</td>
<td>0.1</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02</td>
<td>0.02</td>
<td>0.03</td>
<td>0.02</td>
<td>0.03</td>
<td>0.03</td>
</tr>
<tr>
<td>뉴질랜드</td>
<td>물량(천톤)</td>
<td>2.2</td>
<td>3.3</td>
<td>5.1</td>
<td>3.1</td>
<td>6.1</td>
<td>4.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1</td>
<td>3.0</td>
<td>2.7</td>
<td>1.7</td>
<td>3.5</td>
<td>2.6</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52</td>
<td>0.33</td>
<td>0.54</td>
<td>0.56</td>
<td>0.57</td>
<td>0.55</td>
</tr>
<tr>
<td>영국</td>
<td>물량(천톤)</td>
<td>1.0</td>
<td>1.0</td>
<td>9.8</td>
<td>1.2</td>
<td>1.3</td>
<td>4.1</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9</td>
<td>1.0</td>
<td>3.6</td>
<td>1.5</td>
<td>1.6</td>
<td>2.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86</td>
<td>1.02</td>
<td>0.37</td>
<td>1.21</td>
<td>1.25</td>
<td>0.55</td>
</tr>
<tr>
<td>프랑스</td>
<td>물량(천톤)</td>
<td>1.9</td>
<td>2.4</td>
<td>3.2</td>
<td>4.2</td>
<td>3.9</td>
<td>3.8</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3</td>
<td>1.7</td>
<td>2.5</td>
<td>2.8</td>
<td>4.1</td>
<td>3.1</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67</td>
<td>0.70</td>
<td>0.78</td>
<td>0.66</td>
<td>1.05</td>
<td>0.83</td>
</tr>
<tr>
<td>홍콩</td>
<td>물량(천톤)</td>
<td>4.7</td>
<td>3.8</td>
<td>2.9</td>
<td>4.1</td>
<td>4.0</td>
<td>3.7</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2.5</td>
<td>2.4</td>
<td>2.6</td>
<td>4.9</td>
<td>5.5</td>
<td>4.3</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55</td>
<td>0.62</td>
<td>0.89</td>
<td>1.20</td>
<td>1.38</td>
<td>1.18</td>
</tr>
<tr>
<td>중국</td>
<td>물량(천톤)</td>
<td>4.4</td>
<td>3.4</td>
<td>3.7</td>
<td>3.4</td>
<td>3.4</td>
<td>3.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2.4</td>
<td>2.3</td>
<td>2.6</td>
<td>2.1</td>
<td>2.6</td>
<td>2.5</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53</td>
<td>0.68</td>
<td>0.70</td>
<td>0.63</td>
<td>0.81</td>
<td>0.71</td>
</tr>
<tr>
<td>남아공</td>
<td>물량(천톤)</td>
<td>1.1</td>
<td>0.8</td>
<td>1.6</td>
<td>5.0</td>
<td>2.9</td>
<td>3.2</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0.5</td>
<td>0.3</td>
<td>0.7</td>
<td>1.9</td>
<td>1.5</td>
<td>1.4</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44</td>
<td>0.40</td>
<td>0.44</td>
<td>0.38</td>
<td>0.51</td>
<td>0.43</td>
</tr>
<tr>
<td>네덜란드</td>
<td>물량(천톤)</td>
<td>1.6</td>
<td>18.1</td>
<td>4.2</td>
<td>2.3</td>
<td>1.4</td>
<td>2.6</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2.0</td>
<td>5.8</td>
<td>3.5</td>
<td>2.7</td>
<td>2.6</td>
<td>2.9</td>
</tr>
<tr>
<td></td>
<td>단가($/kg)</td>
<td>1.27</td>
<td>0.32</td>
<td>0.84</td>
<td>1.16</td>
<td>1.92</td>
<td>1.11</td>
</tr>
<tr>
<td>말레이시아</td>
<td>물량(천톤)</td>
<td>2.7</td>
<td>2.3</td>
<td>2.3</td>
<td>2.8</td>
<td>2.3</td>
<td>2.5</td>
</tr>
<tr>
<td></td>
<td>금액(백만$)</td>
<td>1.0</td>
<td>1.1</td>
<td>1.3</td>
<td>1.2</td>
<td>1.2</td>
<td>1.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37</td>
<td>0.48</td>
<td>0.54</td>
<td>0.44</td>
<td>0.51</td>
<td>0.49</td>
</tr>
</tbody>
</table>

주 1: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60년 독립한 서부 아프리카 가나의 북쪽 내륙에 있는 국가이다. 1인당 GDP는 1천불이 넘는 수준이다.
자료: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6)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1960년 독립한 서부 아프리카 가나의 북쪽 내륙에 있는 국가이다. 1인당 GDP는 1천불이 넘는 수준이다.
3.3. 우리나라의 카사바 수입

우리나라는 카사바 재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카사바 수출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카사바 수입은 카사바 신선/건조가 가장 많으며, 평균(2009~2011년) 391,374 톤을 수입하고 있다. 카사바 신선/건조는 칩과 펠릿 형태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카사바 칩은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용이고 펠릿은 사료용이다. 카사바 전분은 약 21,611톤 수입하고 있으며, 타피오카는 202톤으로 수입량이 미미하다. 카사바 신선/건조와 카사바 전분은 관세율이 각각 88.4%, 45.5%로 주로 TRQ 방식으로 수입되고 있다7).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카사바 신선/건조는 연평균 1.2% 수준의 수입량 증가가 있었을 뿐이지만, 공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카사바 전분은 동기간 연평균 37.3%의 수입 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타피오카는 최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00년 이후로 연평균 126.3%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의 카사바 수입 현황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카사바 신선/건조 HS071410</td>
<td>물량(톤)</td>
<td>291,792</td>
<td>264,547</td>
<td>551,734</td>
<td>283,048</td>
<td>339,339</td>
<td>391,374</td>
</tr>
<tr>
<td></td>
<td>금액(천$)</td>
<td>28,015</td>
<td>34,785</td>
<td>96,129</td>
<td>42,671</td>
<td>72,104</td>
<td>70,302</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0</td>
<td>0.13</td>
<td>0.17</td>
<td>0.15</td>
<td>0.22</td>
<td>0.18</td>
</tr>
<tr>
<td>카사바 전분 HS110814</td>
<td>물량(톤)</td>
<td>4,030</td>
<td>11,256</td>
<td>35,030</td>
<td>9,243</td>
<td>20,561</td>
<td>21,611</td>
</tr>
<tr>
<td></td>
<td>금액(천$)</td>
<td>696</td>
<td>2,970</td>
<td>10,058</td>
<td>4,283</td>
<td>10,453</td>
<td>8,264</td>
</tr>
<tr>
<td></td>
<td>단가($/kg)</td>
<td>0.17</td>
<td>0.26</td>
<td>0.29</td>
<td>0.46</td>
<td>0.51</td>
<td>0.42</td>
</tr>
<tr>
<td>카사바 조제식품(타피오카) HS190300</td>
<td>물량(톤)</td>
<td>24</td>
<td>473</td>
<td>94</td>
<td>161</td>
<td>351</td>
<td>202</td>
</tr>
<tr>
<td></td>
<td>금액(천$)</td>
<td>45</td>
<td>377</td>
<td>171</td>
<td>374</td>
<td>660</td>
<td>399</td>
</tr>
<tr>
<td></td>
<td>단가($/kg)</td>
<td>1.91</td>
<td>0.80</td>
<td>1.82</td>
<td>2.32</td>
<td>1.96</td>
<td>2.00</td>
</tr>
</tbody>
</table>

자료 : Global Trade Atlas.

우리나라의 카사바 수입을 품목별,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카사바 신선/건조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태국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며 단가도 0.17$/kg으로 베트남 0.20$/kg, 인도네시아 0.24$/kg에 비하여 낮다.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6년에 급증하였다가 최근에 감소하였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카사바 신선/건조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7) 카사바칩과 카사바펠릿은 올해 12월말까지는 할당관세로 관세율이 0%이다. 카사바(냉동)은 관세율이 45%로 상대적으로 낮다. 타피오카의 영양세율은 27%임에서 8%이다.
세계 농식품 산업 동향

그림 1 우리나라의 카사바 신선/건조(HS071410) 주요 수입국(동향)

단위 : 톤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자료 : Global Trade Atlas.

그림 2 우리나라의 카사바 신선/건조(HS071410) 주요 수입국(가격경쟁력)

0.25
0.24
0.23
0.22
0.21
0.20
0.19
0.18
0.17
0.16
0.15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베트남, 27,929, 0.20
태국, 277,406, 0.17
인도네시아, 27,038, 0.24

주 1. 그림의 세로축은 단가($/kg)이고 가로축은 수입량(톤)이다.
주 2. 국가명 옆의 숫자는 차례대로 수입량과 단가이다.
자료 : Global Trade Atlas.

우리나라는 카사바 전분을 태국과 베트남에서 주로 수입을 하였는데, 2010년부터는 베트남산 카사바 전분의 단가(0.27$/kg)가 태국산(0.39$/kg)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으로부터만 수입을 하고 있다.
카사바 조제식료품(타피오카)은 중국, 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등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인도네시아 등은 그 수입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태국산 타피오카가 수입이 많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산이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산 타피오카의 단가는 1.13$/kg으로 태국산 2.10$/kg에 비하여 절반 수준이다. 대만산은 단가가 3.01$/kg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타피오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5 우리나라의 카사바 조제식료품(타피오카, HS190300) 주요 수입국(동향)

단위 : 톤

자료 : Global Trade Atlas.

그림 6 우리나라의 카사바 조제식료품(타피오카, HS190300) 주요 수입국(가격경쟁력)

주 1. 그림의 세로축은 단가($/kg)이고 가로축은 수입량(톤)이다.
주 2. 국가명 옆의 숫자는 차례대로 수입량과 단가이다.
자료 : Global Trade Atlas.
4. 마치며

카사바는 주정, 바이오 에탄올, 사료, 제지, 식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카사바는 남미가 원산지이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에서 생산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사바의 주요 생산 국가는 나이지리아,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가나 등이지만, 주요 수출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다. 아프리카는 수출을 하기 위한 물류, 유통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동남아라는 셀이 주식이기 때문에 수출할 여력이 있는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카사바를 식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사바의 주요 수입국들은 중국, 한국, 네덜란드, 대만 등의 국가로 주정, 사료, 공업용 등으로 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주정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태국이 주요 수입국이다. 최근에는 버블티로 타피오카 펄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식품업체에서는 감자 전분과 고구마 전분을 대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 변화 및 바이오 에탄올 수요 증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여 카사바에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CJ 등과 같은 대기업이 동남아로 진출하고 있고 개인들도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로 진출하여 카사바를 재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현재 옥수수, 밀, 콩 등의 국제가격은 연일 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 곡물시장은 계속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변화할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대체 작물인 카사바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 외. 2007. 『조리용어사전』. 황문각.
농림수산식품부. 2012. 『농축수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품목별 수출입요령 2012』.
PC-TAS, The International Trade Centre, WTO, UN

참고사이트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kati.net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http://southkorea.nlembassy.org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타피오카(카사바) http://cafe.naver.com/cheon6768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FAO, FAOSTAT http://www.fao.org
Global Trade Atlas http://www.gtis.com
WTO http://www.wto.org